

뉴스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청년을 위해 뚝다”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이지민 기자 delicato@khu.ac.kr

지난 6일, 8일, 10일 사흘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1대 총선 청년후보-대학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 후보(28), 8일에는 국민의당 김근태 비례대표 후보(29), 10일에는 미래한국당 김은희 비례대표 후보(28)가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는 후보자 소개 및 정당 공약, 학보사 공통 질문, 자유질문, 최종 발언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소개 및 정당 공약에서 전용기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목격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김근태 후보는 “조국 사태 때 마이크를 잡으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희 후보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졌다”며 “같은 입장을 가진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학보사 공통 질문은 서언회 소속 간담회 참여 학보사에서 사전에 질문을 취합한 뒤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이 사는 사회에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전용기 후보는 “청년이 공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진영논리가 심화된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희 후보는 “저는 ‘N포세대’라고 생각한다”며 “결혼과 연애가 하고 싶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당 후보들이 학보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전용기, 김근태, 김은희 후보(왼쪽부터)



(사진=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제공)

제21대 총선 청년후보-대학기자 간담회

전용기 후보 “청년이 공감할수 있는 청년정책 필요”

김근태 후보 “진영논리 심화된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 필요”

김은희 후보 “결혼과 연애 하고 싶어지는 나라 만들자”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의 정치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용기 후보는 “청년정책제안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상도 주고 정책 관련 단체도 소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게임 산업, 성 갈등과 같은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의제를 제시하면 정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은희 후보는 “청년과의 공감을 통해 거리감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탈정치화가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용

기 후보는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서 정치가 청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탈정치화로 볼 수도 있지만 이념과 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여론과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노력한다면 이미지 정치에서 정책 위주의 정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은희 후보는 “대학가에서 정계에 대해 실망이 반복되다 보니 기대조차 없게 돼 불신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많은 청년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고

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용기 후보는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줄 사람이 같이 밀어주고 같이 목소리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후보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주는 것보다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청년이 이익 집단화가 아닌 가치집단화로 조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후보는 “기성 정치인이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청년 정치인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내 청년 정치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질문은 후보자가 기자를 지목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용기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에서 실시한 ‘청년 비례대표’의 실패론과 관련해 “프레임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청년 비례대표는 청년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근태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한 ‘전역 장병 사회진출격려금 2천만 원 지급’이 ‘현금살포성’ 공약이라는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니라 전역 장병이 안보에 노력한 것에 대한 조건적 복지”라며 “현금살포성 복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은희 후보는 정부의 출산율 관련 정책에 대해 “정책을 만들었으니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처럼 느껴졌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젊은 세대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발언에서 전용기 후보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김근태 후보는 “언제든 소통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은희 후보는 “청년에게 신뢰받고 청년과의 연대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 전면 출입통제 중 … 용무 없는 외부인 출입 제한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우리학교가 외부인 출입제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우리 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캠퍼스에 몰리는 상춘객들을 통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제캠퍼스 정문 앞에는 펜스가 둘러졌고, 서울캠퍼스는 근무자가 서서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정문 이외의 통로는 폐쇄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 입간판, 바리케이트 테이프 등을 이용해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에도 학교 내부에서는 외부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4월 5일 국제캠 사색의 광장에는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마스크조차 끼지 않은 외부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화장실을 이

용한다는 이유로 학교 건물에 마음대로 출입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 건물은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놓은 상태다. 출입증을 건물 입구에 태그하지 않으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되어 있다. 그러나 관계자가 출입하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같이 건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발견됐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만 모여 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는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캠 스보안업체 에스원은 “외부인들이 보통 등산로나 샛길을 통해 들어오는데 캠퍼스의 크기가 너무 크고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모든 경로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출입이 허용되는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는 출입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출입 통제 입간판을 뒤로하고 학교 내부엔 외부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외부인을 골라내기 위해 학교 측은 출입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국제캠 에스원은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학생증이나 관계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 달라 요구하고 외부인이라면 나가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의 말을 듣는 척하

며 다른 장소로 가 꽃놀이를 계속 즐기고 심지어 관리자의 통제에 화를 내는 외부인들도 있다”고 통제에 어려움을 전했다. 학교 측은 더 철저한 외부인 통제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이희표 팀장은 “정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철저하게 통제

하고 있고 후문과 남문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폐쇄했다”며 “그 외에 샛길이나 쪽문은 입간판과 함께 막아 놓았다”고 자세한 출입 통제 방식을 설명했다. 또한 “바리케이트를 통해 등록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다”며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주차관리소에서 용무 확인 후 부분적으로 들여보낸다”고 말했다. 서울캠 측은 추가 대책으로 “현재 동대문구 구청장과 연락해 지역 주민센터나 단상회 때 학교 출입 통제와 관련한 안내를 부탁해 놓았다”며 “현재 외부인을 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또한 최소한의 부분만 제외하고는 정문을 폐쇄해 놓은 상태다. 국제캠 측은 “현재 최대한 등록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더 확실한 통제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